

목어

無想이 實相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아 보살이 아상(俄相)이나 인상(人相)이나 중생상(衆生相)이나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 이 상(相)은 명상(名想)의 의미이므로 현상은 아상(俄想)·인상(人想)·중생상(衆生想)·수자상(壽者想)으로 번역하였다. 상(相)은 곧 만심(萬心)이다. 마음에 어떤 차별상을 갖고 분별심을 가짐으로써 탐욕이 발동한다. 욕심대로 잘 안 된다고 성질부리며, 어리석게 시기(猜忌)·질투(嫉妬)·모함(謀陷)·아침(阿諛)·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 등 온갖 만음과 비굴함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양심마저 휴지통에 버린 채 남의 시선도 비웃음도 모르는 쉼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불신의 골은 깊어져 악업의 순환으로 사회는 점점 '지옥'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본래 맑고 밝은 것이므로 인간이 어떠한 만음을 부릴지라도 그 근본은 착하고 좋은 마음(良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못된 짓을 하는 중생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타일러서 스스로 깨달아 본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간절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익혀서 행함으로써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제자라고 할 수 없다.

입체의 상을 안과 밖으로 집착하거나 지어냄이 없고 결림이 없으면 곧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형색이나 어떤 소리에 걸려들거나 집착한다면 그는 사된 외도일 뿐, 부처님의 깨달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불제자로 훗날 내는 불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선·염불·기도·참회의 목적은 곧 참된 불제자 됨의 다짐이다.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돌아서 누우며 챙겨보면 서 상에 걸리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삶을 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내 삶속에 '상생'이 녹아 있는지...

물자 세상보기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고 작년에 결혼하여 부모 덕에 그나마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방 둘 자리 전세에 살며, 그 방안에 전화와 냉장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컴퓨터까지 갖췄었다면, 이미 나는 최소한 물질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상층부 8% 안에 들어 있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100명 중에서 92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나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한다. 그런 나는 상층부 0.1%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소유의 정도가 곧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린 나는 끊임없이 무한한 소유를 욕구하지만,

그 꿈이 사실을 알고 보면 바로 불행의 척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미국 인터넷 상에서 62억 인구의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메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인터넷 메일인 셈이다. 백범 중의 한 명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행복 찾기도 지구인의 1%의 사람만이 누리는 독점적 행복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62억을 100명으로 축소함으로써 나의 삶의 현재 위상을 단

순하게 살펴 볼 수 있고, 따라서 소박한 메시지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 내린 부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소하지만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따지고 보면 나도 선택된 사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나눔 가지고 더불어 살며 배풀고 서로 고리지며 남 위해 기도하는 삶

느끼는 일이다. 내가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라면 나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변명이지만 지금의 혹독한 경쟁사회는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더구나 나를 삶의 문맹자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노골적인 약육강식을 드러내는 요즘 사회를 보면 서로 함께 같이 잘사는 일은 곧 경쟁력 약화가 된다는 괴이한 무한경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노동자 구조조정이 그렇고, 고교 평준화 폐지론이 그렇고, 파벌경쟁을 정당화하는 고질적인 우리의 학벌 체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을 이긴 자는 추앙과 각광을 받는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이뤄낸 승리의 탑을 받쳐주는 대다수의 약자들은 배양이 할 법거리도 없는 정신적 공허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짜 불행이다.

나도 이런 경쟁사회에 대한 정신적 치료제로서 〈화엄경〉이나 〈금강경〉



의 좋은 이야기를 반질반질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나오는 인드라망이나 상생의 이야기를 정말 나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녹아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나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기도 한다. 나눔을 가지고, 더불어 살며, 배풀고, 서로 고리 지으며,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경쟁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다. 결과가 어떻든 배양이 할 법거리도 없는 정신적 공허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짜 불행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삼보회, 대원회, 구도회 등 재가 수행단체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90년대 이후 청년층의 가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노령화가 심화되고

열린 마당

신행단체 활성화 이렇게...

상운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신행단체는 사찰 신도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신행단체는 사찰을 근본도량으로 하고, 불교적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실행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 신행단체들은 사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신행단체와

또다른 특징을 지닌다. 조계종은 신행단체가 근본도량을 정하고, 지도법사를 여법히 모시는 가운데 제도권 내에서 신행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법제화하고 있다. 신도의 입교와 활동이 사찰을 통해 이루어

회원의 다양한 욕구·이해 반영을

지도로 재적사찰 갖기와 신도증 발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찰 신도회 뿐 아니라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등), 부문별(직장, 직능 등) 신도단체에 대해서도 그 활동이 반드시 근본도량(사찰)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만큼 인식과 참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가 신행단체들이 현재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2천년대에 맞는 건강한 이념과 정체성 찾기, 회원 재생산 구조 완비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별 특성과 활동 방향의 올바른 정립은 조직의 유지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행활동을 기본으로 수행, 청소년포교, 국제연대, 봉사, 시민사회활동 등 그 활동의 내용을 확대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권순정 (삼보회 포교이사)



급변하는 사회의 구조와 인터넷의 생활화로 대중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불교계는 이에 맞는 재가 신행단체들의 체계적인 활동과 불교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 신행단체들의 기본법칙인 '일일법회'는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노령화 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사설 포교의 기지를 발휘, 눈높이를 맞추는 포교가 필요하다. 불교가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정보를 제공해 젊은층에게 불교와 인연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눈높이 맞춘 포교·전문인력 양성

한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불교를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불교관련 직업을 발굴, 젊은이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포교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불교문화 관광의 가이드, 장묘 상담 전문직, 첨단장비를 이용한 불교문화재 연구사업 개발 등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 신행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문화재를 컨텐트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재가 신행단체들은 특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하고, 이 인력들이 직업화, 안정화된 상태에서 마음껏 포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 포교직종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재가 신행단체들은 보다 현대화, 조직화, 체계화된 포교를 통해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최근 청년회합회 회원의 급격한 감소는 불교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며, 불자가 다같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다.

동산반야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단체이지만 매년 새로운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회원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침체보다는 오히려 공부하고 봉사하는 작은 동아리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신행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가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을 위한 불교의 모습으로 크게 변해야 한다.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교를 필요로 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찰은 시민을 위한

시민 찾는 불교되도록 변해야

일보다 스님을 위한 불교이며, 사찰은 조용하고 고요해야만 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신행단체나 사찰은 항상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화하고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불교가 되려면 시민이 찾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 계층별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행단체나 사찰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불교로의 전환을 통해 불자들을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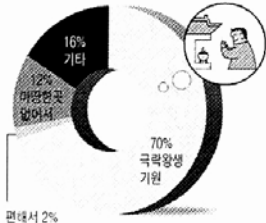
또한 신입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중 다양해야 한다. 신입회원이 정기적으로 입회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노령화되는 지름길이며, 그 단체 존립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신입회원과 선배회원의 활동이 어울릴 때 그 단체 조직이 튼튼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 신입회원 모집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자의 생각

사찰납골당

부다뉴스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네티즌 불자들이 사찰납골당에 자신이나 가족의 유해를 안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명의 응답자



선호 87%... '극락왕생기원' 70%

가운데 사찰 납골당을 선호한다는 불자는 88명(87%),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불자는 13명(12%)이었다.

사찰납골당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라는 답이 단연 앞섰다(63명 70%). 이에 비해 제사 모시기가 편해서라 답한 불자는 2명(2%)에 불과했으며 선산이 없어서라 답한 불자가 11명(12%)이었다.

임연태 기자

권대항 목재 대항 불교 건축

- 사찰 대응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별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 12자 : 1자 ~ 2자 2치
- 18자 : 1자 ~ 1자 8치
- 20자 } 1자 ~ 1자 8치
- 24자 }
- 30자 : 1자 ~ 1자 7치
- 36자 } 1자 ~ 2자까지
- 40자 }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지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항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입장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항상 처음 이르는 지제로 변형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방울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사육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리를 덮은 뒤 왕겨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타 타들어 가지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알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승원)

기문둔갑 강의안내

- ▶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의 : 02) 961-0870 ~2)
- ▶ 개강일시 : 2002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 ▶ 수강료 : 학기당 16만원 (60세이상 50%할인)
- ▶ 원서접수 : 2002년 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 ▶ 접수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체육대학 2층)
- ▶ 접수방법 : ※ 직접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 인터넷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web.khu.ac.kr/~cce)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사진 2매
- ▶ 수강과목 : 기문역학 (기문둔갑 : 사주, 직명, 직명)
● 1학기 : 기초해단과정 ● 2학기 : 전문해단과정 (전문해단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에 한함)
- ▶ 담당교수 : 손혜림 (민간기문역학원장 02)3476-3433, 3430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제 6기)

기문둔갑은 사람이 태어난 사주를 바탕으로 하여 마늘로부터 주어진 운명을 연구하고 그 운명의 길흉화복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위한 명리학입니다. 심복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전쟁에 이용하였을 만큼 역학명의 으뜸인 기문은 그동안 비법전수되어온 탓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학문이었으나 이번기회에 알기쉽게 전달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